

# 경남간호

##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6호

권두시 | 남해 독일마을에서 | 김향숙 **경남간호갤러리** | 서양화 | 장병순 **경남간호인** | 통영두리힐링센터장 강들순 · 김해 성모요양병원 간호사 김여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 | 강세란 · 김지원 · 신경희 **회원작품 맛보기** | 장춘선 · 윤선미 · 거창군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 이귀옥 · 진은혜 **또 다른 나의 삶** | 김현옥 · 이종임 · 장우연 · 조순연 **제29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시민 생명 구한 손미나 · 창녕군 감사장 수상 · 자랑스런 리더상 시상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권두시



## 남해 독일마을에서

등고선 저 너머로 라인강이 얼비친다  
처음 타는 비행기의 지루함과 친할 즈음  
전차가 지난 지도 위 저린 발을 내딛는다

태극무늬 지워질까 뼈에 새긴 날들 앞에  
헐리고 찢긴 가슴, 잃어버린 모국어여  
차라리 링거를 뽑고 무명치마 입고 싶다

고개고개 넘어와서 쪽창을 여는 달빛  
두고 온 달동네의 사투리를 불러오면  
팬스레 눈물 보일까 돌아서던 어머니

# 경남 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6호



김향숙 2014년~2018년 도서모임 '아름다운 사람들' 회장 | 2016년 제19회 공무원문예대전 동상(시조) | 2017년 중앙시조백일장(차하) | 2018년 제21회 공무원문예대전 동상(시조) | 2020년 공직문학상 은상(시조) | 물미 시낭송협회 창립, 초대회장 | 현) 남해 대벽보건진료소장, 남해문화회원



■표지이야기  
제76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 경남간호

###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6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박형숙  
 발행일/2020년 12월 31일  
 편집장/신미란  
 편집위원/김영란, 심봉희, 이숙희, 조상희, 하재현, 황진희  
 주소/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남해 독일마을에서 | 김향숙

- 4 권두언 | 박형숙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 6 격려사 | 윤시영 | 증경회장

8 경남간호 갤러리 | 서양화 | 장병순

### 경남간호人

- 10 우리의 꿈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기'  
통영두리힐링센터장 강들순



- 14 <애벌레에서 나비의 꿈을 꾸다>  
김해 성모요양병원 간호사 김여진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

- 18 어느덧 1년... | 강세란
- 21 뒤돌아보는 나의 2020년 | 김지원
- 23 코로나19와 함께한 간호학과의 변화 | 신경희

### 회원작품 맛보기

- 26 서양화 | 장춘선
- 27 한지공예 | 윤선미

- 28 염색공예 & 도자기공예 | 거창군간호사회
- 29 목공예 | 통영시간호사회
- 30 시 | 별빛 정원 | 이귀옥
- 31 수필 | 다시, 간호사로 서다 | 진은혜

### 또 다른 나의 삶

- 34 정년퇴직 후 나의 일상 | 김현옥
- 37 간호사라는 레테의 강을 건넌 나는 베짖이 | 이종임
- 40 새로운 길 | 장우연
- 43 나의 삶 | 조순연

### 46 제29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 56 경남간호 '핫이슈'

시민 생명 구한 손미나 김해복음병원 수간호사  
 경상남도간호사회 코로나19 성금, 물품기탁 관련 창녕군 감사장 수상  
 자랑스런 리더상 시상

###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 60 2020년 본회 주요소식
- 63 2020년 본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창원시간호사회 ·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 하동군간호사회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 거창군간호사회 · 밀양시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68 코로나19 대응 모습
- 69 기획위원회 제작 소책자
- 70 2021년도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 71 경남간호사회 임원, 분회 회장, 상임위원

72 편집자 레터

## 코로나19를 뚫고 간호법을 향하여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존경하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생소한 지침이 일상이 되었고, 모든 계획들은 대부분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경남간호』 제26호의 발행을 주저하게 만들었으나, 지금도 간호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경상남도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고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를 간호사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기 위하여 ‘세계간호사의 해’로 정하면서, 전 세계가 간호사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을 즈음 코로나19는 간호사들의 뺏속까지 녹아있던 생명을 위한 헌신과 돌봄의 정신을 일깨우기 시작하였습니다.

2월 초 마스크 1,000장을 준비하여 창원중앙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3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지역의 선별진료소와 전담병원 등의 간호사 인력확충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이하 전 지부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경남에서도 1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고, 장시간 불편한 레벨D 방호복, N95 마스크, 고글 착용과 고된 업무, 폭염으로 지친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본회에서도 3월부터 경남 도내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중증 응급진료센터 58개 기관에 방역물품과 간식을 전달하였고, 8월에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사회공동모금회 후원으로 하절기 물품들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보건교사회에서 간호사들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성금을 후원하여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5월부터 12월 말까지 경남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과대

“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하였지만, 한편으론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생명을 위한 활동들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봉사roman 인식되었던 간호사의 업무가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임무로 재평가받았고,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 부재의 현실을 더욱 체감하며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학교,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위한 간호사 채용을 경상남도교육청과 연계하여 202개 학교에 배치하였고,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관내 생활치료센터에도 간호사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할 시점에 제29회 학술발표회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개최하여 올해 처음으로 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회원들의 연구능력 함양과 다학제간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두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하였지만, 한편으론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생명을 위한 활동들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봉사roman 인식되었던 간호사의 업무가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임무로 재평가받았고,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 부재의 현실을 더욱 체감하며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연말까지 회원 여러분들의 결집된 클린정치 참여는 실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과 염원을 담은 여러 활동들은 <2021년은 결실의 해>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48년 만의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의 부활,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의 법제화 등과 더불어 단독 간호법을 향한 기나긴 항해는 대한민국의 항구에 닿을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의 만 오천여 명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거센 폭풍을 물리칠 때까지 감내해야 할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남간호』 제26호 발행을 위해 힘써 주신 신미란 홍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훌륭한 원고와 자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



윤시영  
제13대 중경회장

“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순간에 의료인으로서 자리를 지킬 책임,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닿는 데까지 할애할 사명, 그리고 자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력이고 의료 행위에 대한 가능성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본인을 소중히 할 인성까지... ”

1945년 창립 이래로 경상남도간호사회는 현재까지 수많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냈습니다.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가 분야별로 배출되면서 오랜 역사 속 기반 위에 그에 걸맞은 연륜과 빛나는 인재 양성을 통해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로서,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이번 2020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 전염병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의료 계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제자리를 지켜온 이 시기 말입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태에 많은 의료 인력난과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도 경남간호사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모집 팝업 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졸업하는 간호사는 많지만 현장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현실이 와 닿는 부분입니다.

간호사라는, 그리고 넓게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주 높은 학력과 그에 따른 지식수준, 추가적으로는 윤리 의식 등이 요구된다고들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언급한 것들 또한 필요한 덕목 중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순간에 의료인으로서 자리를 지킬 책임,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닿는 데까지 할애할 사명, 그리고 자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력이고 의료 행위에 대한 가능성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본인을 소중히 할 인성까지...

비록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의무로 다가오고 그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이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선정되었고, 범유행전염병인 코로나의 시작으로 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의료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한 해였음이 분명하고, 모두가 수고스러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회원들의 정보제공자 중 한 명으로서 『경남간호』 회지에 격려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shakespeare & company /53cm×72.7cm

●작가노트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방에 즐겨 갑니다. 책방에서 기다리는 책과 책방에 발 들이는 동무들과 만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책방이란 공간을 통해 내 삶에 들어온 행복과 희열이 소중한입니다.

파리의 Shakespeare & Company, 보수동 책방골목의 고서점, 우리글방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지켜내는 골목 책방은 시대를 열고 인간을 깨우는 새로운 향기가 번지고 스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쌓인 책들의 결을 그리며 책을 만든 사람들과 책을 읽은 사람들의 시간의 결, 생각의 결을 감각합니다. 그 시간은 홀로 있되 말할 수 없이 풍요롭습니다.



보수동 책숲 /53cm×40.9cm



보수동 고서점 /53cm×72.7cm



장병순

화가 | 2010~2020년 부산광역시교원미술전람회 출품 | 간호학 박사 | 현) 부산 동백초등학교 보건교사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요즘,  
 일선에서 너무나 힘들에도 나이팅게일의 혼을 이어받은  
 그 정신으로 버티고 계시는 많은 간호사님들!  
 두리힐링센터에 오셔서 텃밭의 고구마도 함께 캐고,  
 민들레 노란 꽃잎과 절구통 물속의 빗방울 마주치는 소리에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멍때림 명상도 하고,  
 아침이면 비파나무 위 새들의 합창 소리 들으며  
 잠을 깨는 순간들을 위한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라본다.



|경남간호인|

## 두리의 꿈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기' 통영두리힐링센터장 강돌순

● ●  
 간호사 누구라도 그러한 것처럼 하루도 편하게 일없이 돌아가는 법이 없는 일정 속이지만, 나의 공식적인 '학자의 길'로서의 마지막이 될 듯한 지금 글을 쓰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눈 마음들이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울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슴속에 거미줄을 남긴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보듬은 채 어둠 한 자락 덮고 살아가며, 희망의 씨 하나씩을 묻고 살아간다 한다.

나 또한 그랬을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많은 함축성을 갖고 누군가 물어보면 "간호원요~ 선생님요~" 망설임 없이 말했던 것 같다. 그런 직업군이 될 하는 것인지



통영두리힐링센터 텃밭에서 고구마 캐는 강돌순 센터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이유이자 지금껏 영혼의 지주이신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두 개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감사함의 깊이를 새기게 했고,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리고 당신께서 6살 때 조실부모하여 못다 한 공부 때문이셨는지 "너는 커서 꼭 학자가 되거라"고 하셨다.

학자(學者)는 사전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그 풀이를 보면 '배울 학, 사람 자'로 '배우는 사람'이란 뜻으로, 평생을 배워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도 '체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 이제껏 배움에 대한 설렘으로 미지의 샘터를 찾듯 헤매는 삶이지 않았나 싶다.

● ●  
 '돌순'이라 지어진 이름도 '둘러서 아들'을 원할 만큼 남아선호 시대였기에 축복받을 수 없었던 3남 4녀의 다섯 번째 서열 막내딸로 태어났다. 출생과 동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 지금도 5cm 이상 되는 우측 사타구니의 큰 흉터와 그 당시에는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시절임을 증명하듯, 마취도 없이 사지가 묶인 채로 수술대 위에는 피고름으로 난장판이 되었고 의사의 험악한 소리까지. "열아~ 열아~ 내려라, 아가~ 죽으면 안돼~ 죽지 마라~" 간절히 주문처럼 외우며 몇날을 콩심은 논두렁 밭두렁으로 엮고 다니며 살렸다는 큰언니가 했던 말들과 불러줬다는 '동그라미 그리려다~' 노래와 푸른 보리밭들, 만 3살 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아마 그 이유로 지금도 의사를 두려워하고, 병원 근무 시절 수술실은 피해서 근무했던 것 같다. 55세쯤 갱년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 노래를 부르며 울고 있었고, 보리밭 꿈을 많이 꾸기도 했다.

현재 진행형인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으로서 보건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경남간호사회 학술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받은 2000년 '올해의 간호인상'과 금목걸이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통영시간호사회 부회장 4년, 회장 2년을 역임하면서 후배들과 함께 간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간호사 Cheer Up 참여,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여하였다. 간호대학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서 반해 버린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일을 이어 졸업 후 소록도에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시대의 반대가 극심해 포기한 하얀 꿈을 떠올려 보면서, 소록도를 다시 다녀와서는 만감이 깊어 며칠을 밤잠 설치기도 하는 등 뻗속



제1연구소 두리심리상담연구소 내부 전경이다. 위에 사진이 교육 강의실 및 집단상담실(40명 수용), 아래 사진은 개인상담실(침이 있는 닫힌 상담실)이다.

경남도교육청의 찾아가는 학생 금연클리닉과 성평등교육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 실장 1명과 팀장 4명, 관련 활동전문강사 30여 명과 함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사, 성교육강사, 노인 훈련지도사 및 웰다잉교육, 푸드표현 테라피강사, 심리상담사, 미래 진로지도사 자격이수 발행기관으로 교육강사 요람이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경남도교육청의 교원 심리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음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사역량강화(푸드심리상담기법)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폰 강의법

깊이 간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아직은 갖고 살아가고 있다.

둘이켜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간호원요~ 선생님요~”을 당차게 말했던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 아이, 우리의 꿈은 나뉠 이룬 것 같다. 두 가지 직함으로 불리어 봤고 보람도 느낀 만큼 내 인생에 새겼으니 ...

●●

지금, 중년기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63세로 노년기에 들어서는 우리의 바람이랄까. 꿈은 진정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눈물 한 방울로도 가슴에 두껍게 엉켜 있는 거미줄을 걷어내고,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결국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이다.

웰다잉 공부를 한참 할 즈음, 서예를 하는 남편이 대신 써준다는 나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명예퇴직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사전 준비로 6여 년 두리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던 곳은 대한적십자사 남부안전장사봉사회와 제1연구실로 사용하고 있고, 호적의 늦은 등재 덕분에 덩 같은 퇴직금으로 꿈꾸던 전원상담실은 못되지만 120평 규모의 정원상담실을 마련하여 제2의 연구실 ‘통영두리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과 동시에 3년째 경남도교육청의 찾아가는 학생 금연클리닉과 성평등교육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 실장 1명과 팀장 4명, 관련 활동 전문강사 30여 명과 함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도사, 성교육 강사, 노인 훈련지도사 및 웰다잉교육, 푸드표현 테라피강사, 심리상담사, 미래 진로지도사 자격이수



통영두리힐링센터 정원에서

발행기관으로 자연히 교육강사의 요람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경남도교육청의 교원 심리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음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요즘, 일선에서 너무나 힘들에도 나이팅게일의 혼을 이어받은 그 정신으로 버티고 계시는 많은 간호사님들! 누구든, 언제든, 일상이 허락하는 대로 두리힐링센터에 오셔서 텃밭의 고구마도 함께 캐고, 민들레 작은 노란 꽃잎과 절구통 물속의 빗방울 마주치는 소리에 잠시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멍때림 명상도 하고, 아침이면 큰 비파나무 위의 새들의 합창 소리 들으며 잠을 깨는 순간들을 위한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라본다.

봄이면 무논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보라색 자운영꽃과 나의 아버지 꽃인 분홍색 패랭이꽃을 유독 좋아하는 인생 후반기의 우리의 꿈이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기에, 그 꿈의 실현이 천직으로 여겼던 간호사들과 함께할 때 가장 잘 소통되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오늘도 두리힐링센터의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간호의 참다운 가치를 새기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 뚜벅 함께 걸어갈 동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꿈을 놓치지 마라.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애벌레를 나비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다.  
 인생의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있다.

|경남간호사|

## 〈애벌레에서 나비의 꿈을 꾸다〉

김혜 성모요양병원 간호사 김여진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은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답을 찾았다. 후회 없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정해 놓은 원칙에 희망 사항을 더해서 그것을 개발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있는 노년들에게 간호사로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 웃음과 행복,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간호의 영역은 한계가 없으므로 내가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남아 있다면 간호업무를 벗어나서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찾아 나섰다. 찾고자 하니 모든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내가 느낀 한 가지 큰 문제라면 그것은 바로 노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세월에 몸을 맡긴 채 그저 무미건조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많은 Senior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청춘만 부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노년도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했다.

70대에 『치자꽃 향기』 시집을 펴낸 진효임 할머니, 일본의 도요 할머니는 99세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펴냈고, KFC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도 65세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화가, 음악가 등 사람들이 노년에 시작하고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롤 모델로 시작하여 인생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자 나는 언제부터인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요양병원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보면서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멋있게 보낼 수 있을까도 늘 생각해 왔다. 웰다잉을 통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시점이 오면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동요하기 마련이다. 이번 생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후회가 없는 삶을 충분히 살았을 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다가 후회 한 점 남기지 않고 갈 수 있게 의식성장을 더 확장 시켜야겠다고 이것을 또한 알려 주고 싶었다.



사우디 리야드 센추럴병원 근무 당시 직원들과 함께



김혜 성모요양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나는 지금 간호사이면서도 작가로, 동기부여가로, 인생 2막 코치로  
노년들에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SNS 상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나는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매일 다방면으로 여러 공부를 나름 하고 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보행보조기구 사용시 주의점 교육



병동전체 합동 생신잔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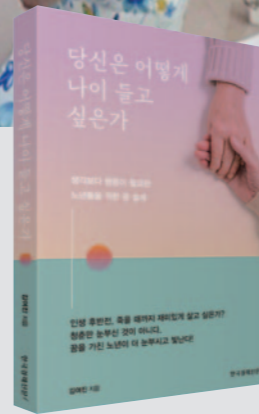
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자주 생겨서 그 기쁨을 충만히 느낄 때 큰 슬픔은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간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가 정작 후회해야 할 일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을 때가 가장 후회스러운 삶인 것이다.

나는 지금 간호사이면서도 작가로, 동기부여가로, 인생 2막 코치로 노년들에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SNS 상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나는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매일 다방면으로 여러 공부를 나름 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내가 간호사이면서 작가라는 것을 알고 SNS에서는 더 많이 신뢰하며 소통하고자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질문에 나는 성심껏 답해주었고 나의 경험들을 들려주면서 많은 동기부여와 함께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내가 올리는 게시물의 글귀 하나가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들의 감성을 터치하여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 줄 때와 좋은 글에 감명받았다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할 때가 나는 가장 보람을 느낀다.

작년 9월 9일부터 처음 시작한 페이스북은 현재까지 5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친구수 만도 4,965



김여진 저서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를 들고



명이며 곧 맥시멈 5,000명이다. 블로그도 1,936명이 넘었고 인스타도 1,427명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미미하지만 나는 계속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강연 매체를 통하거나 유튜브로, 오디오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꿈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꿈을 놓치지 마라.”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애벌레를 나비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다. 인생의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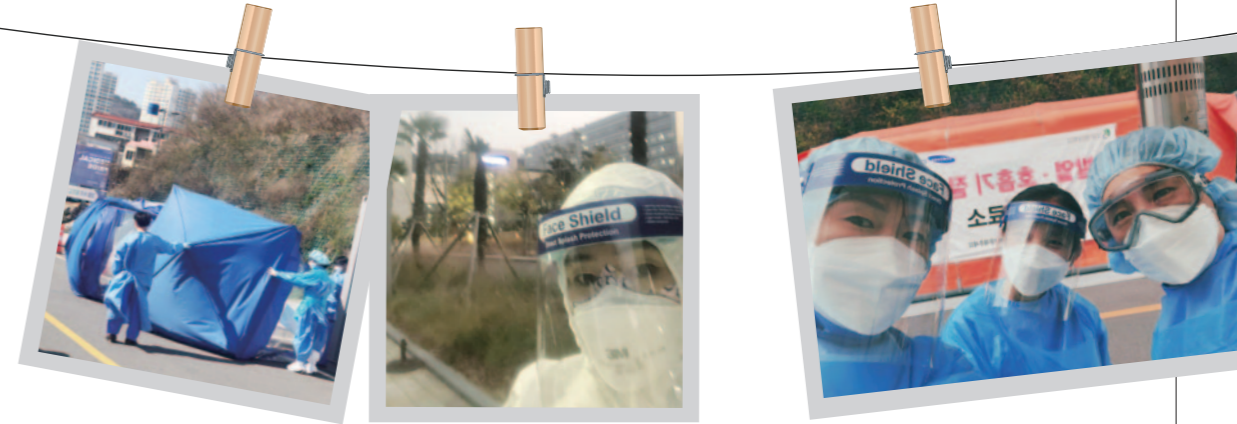
## 어느덧 1년...

강세란 /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코로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영화에서만 접했던 일들이 어느덧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1년이 지났다. 처음 선별진료소 업무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다. 감염 프로세스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공지사항은 수시로 변경되어서 도통 종잡을 수가 없었다.

지금은 레벨디, 고글, 마스크가 없는 일상은 생각할 수 없고 나의 몸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레벨디는 우주복을 입은 듯 갑갑하고 한순간에 땀보로 변신시켰다. 땀으로 젖은 쿽쿽한 냄새는 N95 마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밤새 쏟아진 비는 선별진료소 주변은 수해지역을 방불케 했다. 간이텐트 천막은 날아가 버리고 토사로 주변 환경은 엉망, 울고 싶은 심정을 꺾꽂 누르고 시간에 쫓기듯 우산 쓸 여유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다녀야 했고 이러다 내가 감기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무서웠다. 출근하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외 선별진료소로 가는 걸음은 무거웠지만 안쓰럽게 봐주는 동료들과 “우리 병원의 특공대 선생님! 힘내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다.



스크를 벗는 순간 코를 찢었다. 결핵 환자들을 간호할 때만 사용했던 N95 마스크! 생각만 해도 숨이 차오른다. 하루종일 사용한 고글은 코와 이마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아픈 훈장처럼 말이다.

선별진료소 근무자에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근무 위치부터 식사, 탈의, 샤워 등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동료들과의 단절된 세상은 한동안 힘들게 했다. 단연 코 더운 여름이 최고의 문제였다. 코로나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갈증과 무더위는 간호사 생활 중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의 역습이었다. 생리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극한 상황! 레벨디를 입는 순간부터 물도 화장실도 우리에게서 허락되지 않았다. 상상만으로도 피부가 말라가는 듯하다.

한번은 유독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밤새 쏟아진 비로 선별진료소 주변은 수해 지역을 방불케 했다. 간이천막은 날아가 버리고 토사로 주변 환경은 엉망이었다. 울고 싶은 심정을 꺾꽂 누르고 시간에 쫓기듯 우산 쓸 여유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다녀야 했고 이러다 내가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무서웠다. 출근하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외 선별진료소로 가는 걸음은 무거웠지만, 안쓰럽게 봐주는 동료들과 “우리병원의 특공대 선생님! 힘내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별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점점 민감해지고, 진료 및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



사회 여러 단체에서 보내 준 격려 물품과 직원들의 격려, 간호본부장님의 깜짝 도시락, 동료들과 가족들의 응원 협조가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하니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다.

질수록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았다. 환자들처럼 나도 지쳐갔다. 결국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수선생님, 우리는 언제까지 선별진료소에 있어야 하나요?” 엉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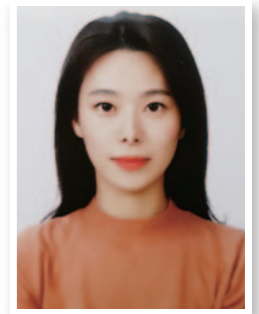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는 1년이 지났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어색했고, 코로나바이러스에라도 감염되면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렸다. 선별진료소 업무도 이제는 정착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사회 여러 단체에서 보내 준 격려 물품과 직원들의 격려, 간호본부장님의 깜짝 도시락, 동료들과 가족들의 응원 협조가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하니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의 세상에서 이 경험은 우리 간호사들의 귀중한 교본이 될 것이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파이팅을 외쳐본다. 영하 15도의 날을 세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방역 수칙을 지키며 협조해 주시는 분들과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 뒤돌아보는 나의 2020년

김지원 / 2021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전공심화과정 수석졸업

2020년을 뒤돌아보면 국민 누구에게나 참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히, 말로 다 담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 그 힘듦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프고 존경스러웠다.

나의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보건실에서 보건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가졌고, 더불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심화 과정 공부도 함께 한 해였다.



### 코로나19와 함께 한 학교 보건실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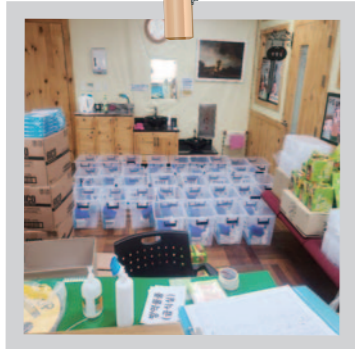
전 세계가 들썩이는 코로나19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학교의 최전방에서 보건교사로 고군분투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각종 증상 처치는 물론이고 몸무게와 키를 재봐도 되냐며 수시로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도 힘든데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또한, 시시각각 달라지는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세우는 담당교사와 함께 발열체크, 급식지도 및 방역 물품을 구매하고 정리하여 각 학급에 배부해야 하며, 학교 곳곳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부착은 기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조퇴 및 등교 중지 안내문 설명과 학부모 인계까지... 한가한 날보다 정신없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해맑은 아이들이 주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동안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함의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다.

이번 코로나19로 보건실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점점 더 보건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학생들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한가한 날보다 정신없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해맑은 아이들이 주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동안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함의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다.

## 코로나19와 함께한 간호학과의 변화

신경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학교 보건실 방역물품



학생들이 표현한 감사의 마음

### 코로나19로 달라진 대학생활 경험

2020년에 나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을 시작하였다.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낮에는 중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수업을 듣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갔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서 그런지 설레기도 했지만 일, 육아, 살림도 모자라 공부까지 하기엔 너무 벅차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 마음이 더 앞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학교에 가기 위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어 부담감은 조금 덜했다.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어보니 여유가 있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율성과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고 소통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공감대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전공심화 동기들과의 소통이 적었으며, 대면 수업으로 학교 가는 날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얼굴조차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졸업을 맞이한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오랜만에 다시 학생이 되어, 퇴근 후 학교에 가서 늦은 밤까지 강의를 듣는 것과 과제, 시험공부까지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끝내고 나니 처음에 고민하고 망설였던 이유가 무색하게 오히려 더 뿌듯하고, 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며, 새해도 내가 원하는 것과 도전하는 것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은 비대면 방식, 즉 언택트 문화를 선호하게 되었다. 일상적인 모든 일이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의 활기차고 생기 있는 웃음이 가득하던 대학 캠퍼스엔 적막감이 드리운 지 오래다. 학생들 간 교우, 선후배 관계도 멈추고, 신입생들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신입생이면 누리던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가 버렸다. 2021년 신입생이 입학하면 1, 2학년생 모두 대학 생활이 낯선 새내기들인 셈이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간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대학교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교수와 학생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 운영 및 지원 방안'을 3월 2일에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대부분 대학이 학과 수업을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 대학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일자를 기존 3월 2일에서 2주 연기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학의 지침에 따라 1, 2주 차에 전 과목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없는 아쉬운 상황에 놓였으며 온라인으로 개강 시작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에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적으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수업 운영 방식은 온라인 매체 활용 수업 및 과제 중심 수업방식 등을 적용하였다.



노인간호학 교내실습(인지기능 프로그램 시연)

교과목 담당교수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강의안과 PPT, 동영상 강의, 학습 자료 등을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주차별 과제 수행에 참여하도록 관리하였다. 아무래도 교수와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므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우려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주차별 과제 수행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 내의 댓글, 비밀댓글 및 과제점수 돌려주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든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한 해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허가함에 따라 기본간호학 실습과 건강사정실습 교과목은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으로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대면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전원 마스크 착용 및 강의실 수시 환기를 필수 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간호학과 3, 4학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이 코로나19 상황이 잠시 나아져 실습을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임상실습은 중단되고 교내실습으로 전환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 일정이 변경된 채 학생과 교수들은 방학을 맞이하였고, 2학기 때는 대면수업을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2학기 도 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기를 마쳤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라 본교는 온라인 수업 출석 인정 조건 등을 학생들에게 구체

모든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한 해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허가함에 따라 기본간호학 실습과 건강사정실습 교과목은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으로 부분적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대면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전원 마스크 착용 및 강의실 수시 환기를 필수조건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성인간호학 교내실습(핵심술기실습)

적으로 공지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 방식 찾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교 또한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방식을 찾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습이 많은 학과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실제 실습실에서 실습기구를 손으로 만져보고 실습을 하는 등 직접 체득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들이 있었다.

비대면 교육의 어려움은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앞섰다. 오히려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 등에 익숙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교수들보다 온라인 수업에 빨리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의실 수업방식은 다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에 익숙지 않은 교수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학문 교류 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이뤄지던 학술대회 대신 온라인 학술발표로 대체되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도 온라인 회의로 바뀐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학의 무한 경쟁 시대다. 코로나19는 대학에 많은 도전 과제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암울한 현재의 상황 극복을 넘어 코로나19를 미래 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이다.



희망 /10호 F/Acrylic/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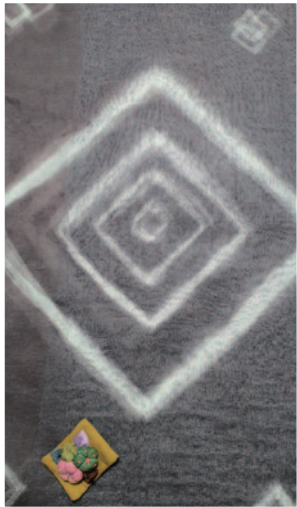
장춘선

2012~ 현재 창동예술촌 그림 수강 | 2019~ 현재 창동예술촌 캘리그래피 수강 | 2020년 국제작은작품미술제 추천작가 유화 <희망> 전시 | 2020년 창동예술촌 리아갤러리 <콜라보 2인전> 유화 전시 | 2020년 성산미술대전 캘리그래피 입선 <열정> | 2020년 경남미술대전 캘리그래피 입선 <방문객> | 삼성창원병원 교육수간호사



윤선미

1991 진주개천예술제 서양화 특상 | 1996 경남미술대전 서양화 입선 | 2010~2016 원내 나이팅게일제 그림 전시 | 2017~현재 한지공예 수강 | 삼성창원병원 교육수간호사



거창군간호사회  
간호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모여 만든 도자기공예 작품들과  
염색공예 작품입니다.



통영시간호사회  
간호역량개발 문화체험교육  
<간호사가 행복한 목공예  
다용도 정리함 만들기>  
작품입니다.





## 별빛 정원

밤새워

별들이 사랑한 정원에  
아침이 시작된다.

별의 새싹들이 태양을 향해 자라고  
정원은 꿈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소나기를 만난 정오의 열기가  
천둥 번개를 불러 새소리를 잠재우는가?

석양은 잊지 않고 별빛 정원을 찾아 든다.

별들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잉태하고  
추억은 달마당에 별담을 이룬다.



이귀옥  
창원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 다시, 간호사로 서다

진은혜 / 거봉백병원 간호사



### 잊고 있었던 나의 직업, 간호사

“축하합니다. 임신 5주차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마치 첫눈이 오듯,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전에 내 곁에 찾아왔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마침내 부산 대동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한 지 채 6개월이 되기 전 일어난 일이었다. “음,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일을 쉬었으면 좋겠어.” 임신 이후 입덧으로 고생하던 나에게 남편은 말했다. 당신의 경력보다는 처음 태어날 우리의 소중한 아기에게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처음으로 근무했던 병원,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배울 것이 많았던 그 병원에서 얼마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그만 병원 문을 나서고 말았다.

사불여의(事不如意).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잠시만 쉬겠다고 나의 다짐은 이어질 수 없었다. 첫째 이후에는 둘째가 태어났다. 남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듯, 나의 삶은 나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휩쓸려 내려갔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주어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그림책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간호 관련 책들을 바라보며 가끔 생각했다. 나도 간호사였던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왜 간호대학에 지원하여 간호사가 되었던 것일까?

### 경력단절 간호사, 다시 간호사를 꿈꾸다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몸빼 바지를 입고 흥겨운 댄스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면서 방을 닦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여기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인데요, 혹시 진은혜 씨 맞으신가요?” 첫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내가 병원 문을 나선 지 6년이 되었을 때였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그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간질간질해졌다. 첫 근무지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재취업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 통화를 끊고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은 교육센터가 멀었다. 센터가 창원에 있었는데 내가 사는 곳은 거제도여서 센터까지 가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4시간이 넘는 왕복 시간, 내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남편은 고맙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래야지. 교육을 받으면 다시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와 파도 거품과 뉘싯배 등을 구경하면서 수줍은 사춘기 소녀처럼 설레하면서 센터로 향했다.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담아 조심스레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들 친절하게 나를 맞아 주셨다. 수업에 관해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다양한 방면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그간 의료법이 개정된 것도 있었고, 기술이 바뀐 것도 있었다. 기본간호학과 실기 실습 등을 듣고 체험하면서 교육진이 너무 훌륭하셔서 크게 만족스러웠다. 교육진들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마치 내가 다시 병원에서 일하는 느낌.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부끄럽게도 밥이 맛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맛있는 간식을 주셨다는 점이다.

###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간호사로

간호 실습을 해야 했는데 사는 곳과 가까운 거봉백병원을 소개해 주셨다. 나는 그곳에서 내과 병동에 배정받았는데 프리셉터를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실습을 일주일 정도 진행했다. “진은혜 씨,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실습하는 것 보니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간호부장님의 말씀에 나는 떨 듯이 기뻐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육아에도 큰 지장이 없는 조건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의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경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일하는 아이 엄마들이 많았다. 어쩐지 유대감이 느껴져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바로 취업해서 일한다는 것이 조금 무서웠는데 센터에서 배운 교육들이 생생히 사용되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더욱 능숙한 간호사, 환자들의 육체적 어려움만을 돕는 간호사가 아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편안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취업하게 된 이후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무릎 십자인대를 다쳐서 일 년 정도 치료하면서 요양하게 되었다. 간호사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왔겠지? 지금은 가족들의 생계와 웃음을 책임지는 당연한 엄마이자, 병동에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간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다. 재취업교육으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었기에 지금도 배우는 것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더욱 능숙한 간호사, 환자들의 육체적 어려움만을 돕는 간호사가 아닌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편안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얼마 전 병원에서 관리하는 고객소리함을 취합한 결과 ‘칭찬합니다’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용을 읽어 보니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글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선정에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내 미소가 좀 아름답긴 하다.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위로가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역시 나는 병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인 것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5~6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간호 경력이 단절되었던 나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더해져 도무지 다시 일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에서 있다. 그런 점에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곳이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너무나 감사하다. 나, 이제 다시, 간호사로 서다.

## 정년퇴직 후 나의 일상

김현옥 / (전)진주한일병원 간호부장

부서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고 최근 환자 안전전담이라는 평간호사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직은 일을 배우며 병아리 간호사로 시작 단계이지만 이 일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살아가게 하는지 잘 알 기에 42년 전 신규간호사로 시작할 때의 설레임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퇴직을 생각하며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매여 못다 한 여행도 실컷 해보고 싶었고 책도 보며 하루 종일 멍 때리며 집에서 텅 굴어 보고도 싶었고, 낯선 곳에서의 한 달 살기 등등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그동안 살뜰하게 챙겨주 지 못한 남편과 딸들도 챙겨주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여유로운 삶을 즐겨 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어찌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갑자기 무력감이 밀려오면서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며 우울한 날들이 시작되더군요. 활동량이 줄어드니 육체적인 변화로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 러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한 가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재앙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발이 꼬뽁 묶여 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인데 만날 수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곧 좋 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당연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줄 몰 랐습니다. 집콕, 방콕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래도 '간호사'라는 면허증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을 이 면허증으로 즐겁게 일하고 우리 가정을 꾸려왔는데



소속 사회봉사단체에서의 김장봉사



진주한일병원 정년퇴임식

또다시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더군요. 시작한 일은 잠시 미뤄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보건교사가 없는 시골 작은 학교에 코로나 발열 체크 간호사로 6개월간 일을 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수한 청소년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 간호사가 되고픈 꿈도 심어 주었고, 젊은 나이에 간호 부서장이 되어 평생을 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급변하는 간호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기 힘들기도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나를 미소짓게 하는 시간 이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의 발열체크 간호사 활동 중

이제 부서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고 최근 환 자 안전전담이라는 평간호사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직은 일을 배우며 병아리 간호사로 시작 단계이지만 이 일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살아가게 하는지 잘 알기에 42년 전 신규간호 사로 시작할 때의 설레임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퇴직 후 나의 꿈도 다시 미뤄두고 "간호사"라는 이 호칭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새삼 느끼 며 제2의 직장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불안감도, 쫓기는 듯한 기분도 우울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처럼 눈밭에서 힐링

코로나로 인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후배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날들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우리 모두 힘내시고 다시 손잡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적의 '당연한 것들' 음악을 함께 들어봐요.

### 당연한 것들 /작사, 작곡 이적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글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 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 간호사라는 레테의 강을 건너 나는 베짱이

이종임 /전)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이제는 레테의 강을 건너 베짱이의 삶을 살기 시작한 나.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스트레스 없는 하루하루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오늘과 내일을 끝없이 마주하며 이제는 더 나이가 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나. 이러한 여유와 편안함으로 인해 더 너그러워지는 나의 모습에 나는 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다.

38년 간의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었던 지난날.  
밤 근무 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하루하루.  
처음 수간호사 승진하면서 승진 교육을 받고 하루하루 어렵지만 재미있고 신나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양쪽 병동에 계시는 선배 수선생님들께 이것 저것 배워가며 지내던 젊은 시절의 나.  
노조 결성 후 첫 파업이 시행되던 날의 막막함.  
환자분이 화장실 창문의 바를 비집고 나가 Fall Down의 사고가 있던 날.  
소아병동 수간호사 시절 AML 환자의 첫 PBSCT(Peripheral Blood Stem Cell Transplantation) 시행 후 Bone Marrow Shut Down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아이.  
수많은 환아들이 항암 투병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 품을 떠나던 일.  
젊은 가정의 사망으로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던 가족들.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의료사고라며 간호사실에 ST Car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그 날의 기억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자존감의 상처를 견디기 힘들어 잠 못 이루던 날들.  
아! 나는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분단장하던 뺨속까지 간호사인 나.  
그렇게 팀장 과장 부장으로 이어지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토론하던 일들.  
3교대 간호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간호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내온 시절들.



변산반도 선유도에서

힘들 때 숨 한번 쉬고 한 걸음 물러나 나 자신을 둘러볼 때,  
 아! 시간이 답인 것을...  
 아! 세월이 스승인 것을...

이제는 레테의 강을 건너 벵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나.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스트레스 없는 하루하루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오늘과 내일을 끝없이 마주하며 이제는 더 나이가 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나.  
 이러한 여유와 편안함으로 인해 더 너그러워지는 나의 모습에 나는 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다.

2020년 1월 1일 공로연수를 하면서 인문학 강의도 들으러 가고, 4월엔 신랑과 같이 스페인·포르투갈 여행을 예약하고, 8월엔 블라디보스톡 여행을 예약하며 낄낄대며 마냥 신났던 그때, 부부심리상담사 1급과 노인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즐길 즈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2020년은 결혼 3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더 기대가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맘껏 해외여행을 가보지도 못하고 여행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갔다. 그나마 결혼기념일이 있는 10월엔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져 매주 1박 2일 여행을 다녔다.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여행으로 자녀들과 같이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었지만 때론 아이들 챙기느라 피곤할 때도 있었는데 신랑이랑 단둘이 4주간 매주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밤늦게 돌아오는 여행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안겨주며 평생 내 걸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신랑이 한없이 고맙고 든든한 1인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평범한 주부로서 삶에 적응하며 1주일 식단을 머리에 그림을 그리며 한가지씩 해 보기도 한다. 항상 맛있다고 최고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내편(?)인 신랑, 모든 것에 감사하며 고마운 일이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없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



여수 백야도의 어느 카페에서

지금도 간호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날까지 단독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권익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대접받는 그 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루하루 벵이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그 날을 꿈꾸시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길

장우연 / (전)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전 또 다른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새롭고 힘든 길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이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간혹 힘들고 지칠 때 동료와 같이 앞으로 헤쳐나가서 더 멋진 내와 숲 그리고 고개와 마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퇴직하고 공로연수라는 새로운 시작을 한 이 시간,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격리병상 간호사 응원방문



병원 내 안전주간 행사



원장님과 함께 후서기 직원 응원 팔빙수데이 행사

2020년 4월, 저는 39호봉이 되었습니다. 1983년 입사 후, 청춘과 인생을 병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며, 나의 길과 병원 간호사로 걸어온 길들을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두려움, 경력자로서의 고충, 관리자로서의 어려웠던 시간들, 특히 안정적인 부산에서 멀리 양산으로 와서 마주한 새로운 길, 숲속 힘든 길 헤쳐나가듯 모두 한 마음으로 손잡고, 땀 닦으며, 앞을 내다보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온, 우리는 간호사라는 동료들 넘어 평생의 친구가 되었고, 병원이라는 직장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병원간호사라는 우리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으로 정년 퇴임



선별진료소 직원 응원

힘들었던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언덕을 만날 때마다 손 내밀어 당겨주고, 밀어주며, 동료로 함께 걸어왔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간호사회에서 새롭게 만났던 멋진 간호사님들!

특히 양산시간호사회에서 만났던 여러 병원의 간호사, 학교에 계시는 간호사들과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님들과 함께 민들레와 까치, 바람을 만나고 같이 내와 숲 그리고 고개와 마을을 넘어 함께 한 모든 시간들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직원 응원



공로연수 야외나들이 중

절실히 원하던, 우연히 선택하였던 간호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학교, 산업체, 보건소, 지역사회 간호사나 연구직이든 우리 모두는 간호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 또한 저의 직장생활 마지막을 간호본부장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싸우다가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길을 걸었던 마지막 해이네요.

그럼에도 이런 멋진 직업을,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서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되어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전 또 다른 새로운 길 앞에서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새롭고 힘든 길을 만나실지 모르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간호사이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간혹 힘들고 지칠 때 동료와 같이 앞으로 헤쳐나가서 더 멋진 내와 숲 그리고 고개와 마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새로운 멋진 길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새해에는 공감과 소통이 활짝 피어나는 따뜻한 어울림 속에서 건강한 웃음과 자긍심이 넘쳐나는 경남간호사회 가족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나의 삶

조순연 / 전)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앞만 보고 살아온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엄마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이 이제는 아련한 젊은날의 추억으로 생각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힘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이 있었기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일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 가는 흔적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늘 끊임없는 도전으로 나만의 최고의 순간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동료 간호사들은 헌신적인 간호활동으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간호사 여러분들! 눈물겹도록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순천향대학교병원에 신입간호사로 시작해 경상대학교병원 수간호사, 간호과장을 거쳐 간호부장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38년 병원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2018년 7월에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우유 먹는 아이를 뒤로한 채 수 주간 연수를 떠나야 했고, 매일 엄마와 이별하는 게 서러워 옷자락을 꼬옥 붙잡고, 엄마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울부짖는 아이를 뒤로 한 채 당당히 바쁜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갔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그때는 직장에 충실함이 최선이었고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리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고 살아온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엄마로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이 이제는 아련한 젊은 날의 추억으로 생각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힘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이 있었기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 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으로서는

1,000여 명의 간호직 소속직원들과 함께 영겨진 실타래와도 같이 하루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2009년 7월 1일자 간호관리료(4등급에서 3등급) 상향조정을 앞둔 몇 주 전에 간호사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호사 수와 수익 원의 병원 수익 등을 계산하고는 만반의 준비



남미여행. 해발4500m 안데스의 알티플라노 高原, 그곳은 시간이 정지된 영원한 現在의 초현실적 세계였다.

를 마친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 앞에 한 개인의 노력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가운데 병원의 큰 수익이 달려있기에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대한간호협회, 심사평가원 등의 모든 담당 직원에게 고시법령 변경 시 사전설명과 유보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음을 직접 전달하고 또 공문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필사적 노력의 결과, 몇 주 후 경상대학교병원은 예외로 6개월 유보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로 큰 안도와 보람을 느낀 기억이 새롭습니다.

#### 경상남도간호사회 제1부회장으로서

2018년 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장, 국회의원, 전국의 병원 대표 간호부서장, 간호학과 교수, 의료 관련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지속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에 '병원간호사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발표자로 나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고 의료 관련 모든 기자들이 발표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은 신입간호사 이직율이 36% 이상이었고,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으로 심각한 수준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모든 병원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특히 교대근무 병원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Art Gallery 연 퇴직후 본격적으로 畫業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의 갤러리는 화가들의 사랑방이다. 덕분에 나도 조금씩 감성적으로 변해가는 듯하다.

아들의 스시가게. 아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가끔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지만 그 또한 삶의 재미이고 행복한 순간들이다.

素屋에서의 전원생활. 고향마을에 소박하게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 가면 자연과 더불어 物我一體가 되는 또 다른 행복감에 젖어들기도 한다.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장으로서

1960년대 한국은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던 시기에 머나먼 타국 독일 간호사로 근무하시고 지금까지 그곳에 거주하시는 선배님 여섯 분을 동창회에 모셨습니다. '고향은 가슴 안에 있는데 눈을 뜨니 타향이다'라는 말을 가슴 한구석에 지닌 채 수십 년째 고향을 떠나 이제야 내 고향 진주에 돌아와 보신 5월의 풍경은 어떠하십니까?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단어이지요? 라고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을 때 눈시울을 적신 선배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씩 떠오릅니다.

#### 진주시간호사회회장으로서

진주시간호사회는 경남간호사회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고 발전된 목표를 향하여 힘을 모우고 동참하였습니다. 21개 여성단체 중 전문직 간호사단체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타 단체로 부터 모범과 신뢰를 구축하였고, 진주시간호사회에서 직종별 대표자격인 이사님들과는 각기 다른 직종과의 소통과 직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하는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정년퇴직 후 나의 일상

간호사로서의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밑거름이 된 것을 회상하며 새로운 인생에 재도전하여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일구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미래의 일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 가는 흔적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늘 끊임없는 도전으로 나만의 최고의 순간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 제29회 학술발표회



### 발표 논문 국문초록

1. 양적연구: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흡입요법이 수술 후 갈증과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  
| 우수논문상 수상
2. 양적연구: 대학병원 간호사에서 일의 의미, 직무배태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3. 양적연구: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4. 양적연구: Glasgow Coma Scale(GCS)의 표준화 측정 방법이 GCS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측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 표준화된 GCS의 요소별 모듈, 사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후 연구
5. 양적연구: 간호사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지식, 건강신념이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우수논문상

##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흡입요법이 수술 후 갈증과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

노혜진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은영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흡입요법(nebulizer)이 수술 후 갈증 및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계 유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경남 진주시 소재의 K대학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통과 후 (IRB 승인번호: 2018-06-015-001), 진료과와 간호부의 승인을 받고 2018년 7월 23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이비인후과 환자 중 귀, 코 부위의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 대상자에게 일반적 간호 및 수술 후, 2시간 후, 4시간 후 총 3회에 걸쳐 생리식염수 1.5cc를 이용한 흡입요법을 10분간 시행하도록 하고 대조군에게는 일반적 간호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변수는 갈증과 인후통이며 이는 숫자평정척도(NRS)를 이용하여 실험처치 전과 실험처치 후 12시간까지 총 5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검증( $\chi^2$  검증), 피셔의 정확한 검증(Fisher's exact test)과 독립 표본 t-검증(t-test)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은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흡입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수술 후 젖은 거즈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한 대조군에 비해 갈증의 정도가 감소 할 것이다.'의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F=3.06, p=0.043).

## 대학병원 간호사에서 일의 의미, 직무배태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영숙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심귀숙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심봉희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교육행정팀장   성주현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2.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흡입요법을 시행한 실험군이 수술 후 젖은 거즈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한 대조군에 비해 인후통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의 제2가설은 기각되었다 (F=0.63, p=0.565).

**결론:** 이상의 결과로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흡입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수술 후 갈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 환자의 안 위 증진에 효과적인 간호 중재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에서 일의 의미, 직무배태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사의 이직관리 프로그램과 간호조직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방법:**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C 대학병원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간호사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Stu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의도는 일의 의미, 직무배태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일의 의미는 이직의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일의 의미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의미,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공공의 선을 위한 동기가 이직의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직무배태성과 하위요인인 조직적합성, 조직연계, 조직희생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한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하위요인인 인간관계, 위협, 업무 관련 괴롭힘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관리 프로그램 적용 시 일의 의미와 직무배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적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기 방안을 고려할 때 각각의 하위요인별 접근 방안을 같이 모색한다면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하미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김동희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외래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하는 5개 대학병원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164명이다. 일반적 특성과 근무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고,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를 11개의 범주 92개의 문항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에서 중요도는 외래진료준비(3.50±0.70), 외래시설 및 환경관리(3.49±0.74), 외래환자상담(3.46±0.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는 외래진료준비(3.49±0.76), 외래진료지원(3.40±0.88), 외래시설 및 환경관리(3.35±0.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래시설 및 환경관리, 외래환자상담, 외래물품관리, 외래환자교육, 외래특수검사업무, 외래행정업무, 외래인력관리, 자기계발에서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외래진료준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 중요도 수행도 분석으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파악하였다. 유지강화영역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았던 항목은 92개의 세부 항목 중 43개이었다. 중점개선영역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수행도가 낮은 업무는 '휴진시 환자 외래진료일 변경하기', '외래진료실 물품 준비하기', '외래진료 인원 조정하기', '응급환자 대처하기(낙상, 실신, CPR 등)', '질환별 개별교육하기(당뇨, 암, 관절염, 고혈압, 투석 등)', '의료기구 청구하기', '간호인력 상담하기'의 7개 항목이었다. 중요하지도 않고 수행도도 낮은 업무로 장기개선영역에 속하는 업무는 92개의 세부항목 중 39개 항목으로 외래환자관리, 외래환자교육, 외래행정업무, 외래특수검사업무, 자기계발 등에서 나

타났다. 중요하지 않지만 수행도가 높은 업무로 과잉노력영역에 포함되는 업무로는 '요청한 제반 문서 발급 안내하기(진단서, 의무기록복사, CD복사 등)', '대기환자 외래진료 지연 설명하기', '신체검진하기(신장, 체중, 두위, 흉위, 시력, 비만도 등)'로 3개의 항목이 속하였다.

**결론:**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 중 외래진료준비를 제외한 외래시설 및 환경관리, 외래환자상담, 외래물품관리, 외래환자교육, 외래특수검사업무, 외래행정업무, 외래인력관리, 자기계발에서는 중요도와 수행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외래간호사의 간호직무 중요도 수행도 분석 결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경영 측면에서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중요도가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과잉노력 업무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시간과 노력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Glasgow Coma Scale(GCS)의 표준화 측정 방법이 GCS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측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된 GCS의 요소별 모듈, 사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후 연구

채명숙 /책임연구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기미경, 김미연, 안수연 /공동연구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황성연 /공동연구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KTAS 자격증을 소지한 응급실 초진분류 담당 간호사를 대상으로 GCS 측정 표준화 교육 전과 후의 GCS와 KTAS 측정 정확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전후 연구(Before-and-after study)이다.

**연구방법:** 연구 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KTAS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3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배 및 사직의 사유의 5명을 제외한 31명을 표집 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비정규 분포를 확인한 후 Wilcoxon 부호순위검정과 Mann-Whitney -U 검정을 이용하였고 R-project ver 3.6.0 “irrCAC package”를 사용하여 Fleiss’ Kappa 계수로 분석하였다.

1. GCS 측정교육효과를 보면 개인반응은 교육 전 평균 12.4±1.4점, 교육 후 13.7±0.5점, 언어 반응은 교육 전 평균 12.1±1.4점, 교육 후 13.6±0.5점, 운동반응은 교육 전 10.9±2.1점, 교육 후 13.6±0.6점으로 GCS 측정 3개의 구성요소 개안, 언어, 운동 반응 모두 교육 전 보다 점수가향상되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총 GCS 정답수를 보면 교육 전 평균 9.1±1.9점에서 교육 후 13.0±1.2점으로 상승하여 총 GCS 정답율이 더 높았다( $p < 0.001$ , Table. 2).

3. KTAS 측정결과에서 GCS 모듈을 적용한 KTAS 측정결과 교육 전 평균 10.4±1.8점, 교육 후 12.3±1.4점으로 상승하였다( $p < 0.001$ , Table. 2).
4. KTAS 측정결과에서 GCS 총점 제시 후 KTAS 측정결과에서 교육 전 평균 10.9±2.1점, 교육 후 12.0±1.4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측정되었다( $p < 0.001$ , Table. 2).
5. GCS 교육 전 후 Fleiss’Kappa 값 비교에서 GCS에서 개안반응은 교육 전 통합(pooled) Kappa 값은 0.79(95%CI:0.74-0.83)에서 교육 후 0.93(95%CI:0.90-0.96)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01$ ). 언어반응은 교육 전 통합(pooled) Kappa 값은 0.73(95%CI:0.67-0.78)에서 교육 후 0.92(95%CI:0.89-0.95)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01$ ). 운동반응은 교육 전 통합(pooled) Kappa 값은 0.59(95%CI:0.53-0.65)에서 교육 후 0.92(95%CI:0.89-0.95)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01$ ).  
GCS 총점은 교육 전 통합(pooled) Kappa 값은 0.52(95%CI:0.46-0.57)에서 교육 후 0.84(95%CI:0.80-0.88)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01$ ). KTAS 점수는 교육 전 통합(pooled) Kappa 값은 0.54(95%CI:0.48-0.59)에서 교육 후 0.75(95%CI:0.70-0.80)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p < 0.001$ ). 따라서 교육으로 인해 GCS 구성요소, 총 점수, KTAS 점수 등 모든 항목에서 평가자간 일치도 증가를 보였다.
6. GCS요소별 모듈 적용과 KTAS 측정 정확도 비교에서 GCS 모듈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할 때 교육 전의 총 정답율은 각각 74.0%, 77.4%로 두 군간 차이가 없었고( $p=0.235$ ), 교육 후에도 같은 수치를 보였을 뿐 아니라 GCS모듈에 상관없이 교육 후 그 정답율은 변동이 없었다( $p=1.000$ , Table 11). 그러나 KTAS 1-3군의 의식수준 기준 점수인 GCS 9점 및 13점과 그 경계에 있는 7점, 8점, 10점, 11점 및 12점, 14점 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GCS 모듈이 적용된 군에서는 교육 전과 후 총 정답율이 각각 73.7%에서 93.0%로 유의하게

## 간호사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지식, 건강신념이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다희 /경상대학교병원 간호사 임영랑 /경상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최소영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향상되었고( $p < 0.001$ ), GCS 모듈이 적용되지 않은 군에서도 각각 82.1%에서 90.4%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12). GCS 모듈 적용 여부가 교육에 교호작용이 확인되어 GCS 교육이 KTAS 측정 정확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 이상의 연구결과로 표준화된 GCS 측정방법 교육이 GCS와 KTAS 측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교육 전·후 GCS 측정교육 효과, KTAS 측정결과 모두 향상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KTAS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인 GCS 교육과 KTAS 측정에 대한 신뢰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KTAS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임상실무자의 현장을 반영한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실제 임상에서 KTAS 분류 담당자의 KTAS 재교육에 대한 의료진의 요구와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HPV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이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의 지식,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간호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J시에 위치한 일 상급종합병원인 G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HPV 관련 지식 점수는 7.98점으로 낮았다.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중 지각된 유익성이 3.08점으로 높았고, 지각된 민감성이 2.09점으로 낮았다.

**연구결론:**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신념의 지각된 유익성, 심각성, 피임경험, 근무경력 1년 미만, HPV 검사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궁경부암 및 HPV 지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자궁경부암 예방 및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얻게 될 유익성을 강조하고, 민감성과 심각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시민 생명 구한 손미나 김해복음병원 수간호사



저는 13년 차 간호사 손미나입니다. 지금은 복음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에 대한 사명감으로 간호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어느 청년들같이 취업이 잘된다더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등등의 이유로 저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던히 달려오는 과정에서 지나고 보니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간호사를 하고 있고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일이니 일만 하자고 하기에는 아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피를 쏟아내고,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조금 전까지 잘 대화를 했는데 창문에서 뛰어 내리는 사건들... 대충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고 환자의 마음을 살피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게 간호를 받은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기술직이라 생각했던 나의 간호직에 대한 생각은 년수가 쌓여갈수록 바뀌어 갔습니다. 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질병에 따른 인간의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간호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진정으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0년 차가 지난 그쯤이었을까요? 헬스장에 있던 외국인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저 사람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물론 그 전에 119님께서 먼저 왔지만요), TV에서 종종 나오는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CPR을 하는 장면을 보면 나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 때 저에게도 정말 그런 상황

이 생겼습니다.

20년 초겨울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에 중년의 여자가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차를 세우고 고민했습니다. 요즘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일단은 상태를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밖으로 나와 있는 터라 차에 치일 수도 있었고, 술을 먹고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있으면 저체온에 객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동맥 확인을 해보니 맥박은 확실히 있었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제 차에 있는 경품으로 받은 담요를 덮어 주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119를 기다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같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일 이후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그곳에 같이 계셨던 행인이 병원장님께 저의 칭찬 글을 올리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진짜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병원에서 칭찬해 주셨고, 이 일로 인해 저는 스스로에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것 같아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아서 말합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상황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나이팅게일처럼 범민족을 아우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제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 12 손미나 간호사 드림.

## 경상남도간호사회 코로나19 성금, 물품 기탁 관련 창녕군 감사장 수상



경상남도간호사회(박형숙 회장)는 2020년 11월 5일 창녕군청 내 군수 집무실에서 창녕군(한정우 군수)에서 수여 하는 감사장을 받았다.

창녕군 내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진들에게 성금 및 물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단체 및 기업, 개인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2020년 경상남도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와 사회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남지역 선별진료소와 전담병원 등 총 58개소에 아이스조끼 495개, 아이스 넥쿨러 160개 및 간식 등을 전달하며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했고, 부산권, 경남 도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간호사 모집 연계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자랑스런 리더상’ 경상남도간호사회 강기윤 국회의원 감사패 증정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12월 28일, 강기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강기윤 국회의원의 감사패 증정식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하여 국정에 힘써 왔으며, 특히 간호계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큰 도움을 주었기에 만 0천여 명의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리더상을 마련하게 되었다.

감사패 수여는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이 하였으며, 한마음창원병원 윤연옥 이사, 이경란 간호과장, 양은주 사무처장이 함께 자리하여 감사의 뜻을 같이 전하였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답사로 2021년 신축년에도 변함없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면서 곳곳하게 보건 의료정책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2020



## 2020년 본회 주요소식

### 제76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및 제30대 임원선거 실시



코로나19의 감염 및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계속 연기되어 왔던 제76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30대 임원선거를 지난 2020년 11월 12일(목) 본회 회관에서 총 대의원 280명 중 147명이 참석하여 회칙 제9조(개의), 제10조(구성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어 개최하였다. 경남도내 갑자기 급증한 코로나19의 감염 등을 우려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정부 방역지침 준수하에 본회 회관에서 간소하고 안전하게 총회 및 임원선거를 진행하였다.

박형숙 회장은 개회사와 정견발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간호시대 10년 대계를 향한 경남간호의 담대한 열정과 지성'을 강조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회원들의 연구역량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당일 임원선거에서 박형숙 현 회장이 제30대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연임이 확정되었으며, 제1부회장은 남정자 마산대학교 간호학부장이, 제2부회장은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가 확정되었다.

### 대한간호협회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및 제38대 임원선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차례 무기한 연기를 반복했던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0년 10월 20일(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날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신경림 현회장이, 제1부회장은 광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제2부회장은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당선되었다.

###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피켓시위 참여



"간호법 이제는 제정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 2019년 12월 27일(금) 오전 박형숙 회장과 양은주 사무처장이 1차 1인 피켓시위에 동참하였으며, 2월 11일(화) 오전에 남정자 제2부회장과 이종임 이사가 참여하였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캠페인 (1인 1마스크 쓰기)



지난 2020년 2월 7일(금). 12시부터 3시간 동안 창원 중앙역 역사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캠페인 '1인 1마스크 쓰기'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위하여 마스크와 예방수칙 전단지 배포하였다. 박형숙 회장은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는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과 평상시 면역 증강을 위한 운동, 식습관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남도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하여 전국 16개 시도 간호사회에서 각 지역의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제49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9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49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29회 학술발표회를 2020년 8월 11일(화) 본회 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나이팅게일 탄신을 기념하고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5월에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 되어 미뤄오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및 연구자, 발표기관의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소규모로 개최하게 되었다. 개회사(회장 박형숙)에 이어 최소영 교육위원장(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질의응답, 총평(최소영 교육위원장)이 이어졌으며, 올해부터 간호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회원들을 격려하고 연구를 독려하고자 우수논문상 한편을 선정하기로 하여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그 외 4편은 참가상으로 상장과 상금 30만 원을 꽃다발과 함께 수여하였으며, 특히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회장 임근희)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받아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 코로나19 현장간호사 지원 및 격려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더위와의 싸움에 지친 간호사를 위한 여름용 물품을 긴급 지원 했다. 대한간호협회 경남지부(회장 박형숙)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경남지역 내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8개소에 하절기 용품으로 아이스조끼 495세트, 넥쿨러 160세트와 간식으로 비타 500젤리 600박스를 나누어 전달하고 더위에 지친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전담병원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고, 선별진료소 등에



서 높아진 업무 부담과 무더위로 탈진하여 쓰러지는 간호사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박형숙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체계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부 차원에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회관 격려 방문**



경남·부산·울산 간호사회는 최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인근의 대구, 경북지역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0일(화) 세 지부를 대표하여 경상남도 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대구광역시간호사회와 경상북도간호사회 회관을 방문하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와 부산광역시간호사회(회장 황지원)에서 300만 원, 울산광역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는 100만 원과 손소독제를 마련하여 응원 메시지와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두 지부에 각각 200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하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사회공헌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지난 2020년 6월 4일(수)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4층 회의실에서 대한적



십자사 경남지사(회장 김종길)와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형숙 회장은 15,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 및 도내의 나눔 문화 확산 노력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많은 경남도내 간호사들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숭고한 목표를 공유한 두 조직이 더 큰 가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대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 산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사업보고**



본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박형숙 운영위원장)에서는 경남도내 유휴간호사 발굴,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하여 2020년 예상 목표수 대비 교육 이수자는 83%, 취업자 수는 85%의 성과를 내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및 연기, 취소되는 교육들이 많았으나 상황에 맞추어 화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 준수하에 철저히 시행하였다. 조직문화 개선교육은 취업예정간호사, 일반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요구도에 맞는 긍정적인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간호관리자 리더십교육, 실습지도자 양성교육, 예비 간호사 진로교육(온라인), 신규간호사 이직방지교육, 경력간호사 이직방지교육, 상시실기교육, EMR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이수자 및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BLS) 교육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교육대상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0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창원시간호사회 | 2008. 06. 24.**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물품 전달**



창원시간호사회(회장 이갑옥)는 지난 2020년 3월 5일(목)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도내 병원 중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한마음창원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창원시청 코로나19 대책본부 상황실에 비대면으로 각 10만 원씩 지원하였다.

**진주시간호사회 | 2008. 07. 09.**

**신임회장선출**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2020년 12월 8일(화) 신임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미뤄오다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주시간호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은 김영미(경상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제1부회장 황옥란(복음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 정계량(제일병원 간호부장), 이사진으로 강한순(반도병원 간호부장), 공소란(평거초등학교 보건교사), 윤현순(진주노인병원), 김은숙(진주시보건소), 노선애(세란병원 간호부장), 이은숙(경남과학기술대 간호학과 교수), 하회정(한일병원 간호부장), 감사 조상희(고려병원 간호국장), 박진숙(경상대학교병원 수간호사), 총무 서미연(경상

대학교병원 수간호사)로 선출되었다.

**코로나19 관련 위로금 전달**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 중인 경상대학교병원 음압병동 근무 간호사와 진주시보건소 간호사들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경상대학교병원 음압병동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바디로션, 머리핀, 머리고무줄을 구매하여 전달하였고, 보건소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하여 2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거제시간호사회 | 2008. 10. 10.**

**선별진료소 방문**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조수정)는 간호사회 임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 11일(수)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와 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거제시 관내 기관(맑은샘병원, 거봉백병원, 대우병원, 거제시보건소)을 방문하여 일선에서 힘겹게 선별진료소를 지키는 의료진과 직원

들을 격려하였으며, 위문품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자는 의미로 “힘내세요!”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간호봉사**



2020년 11월 14일(토), 거제시 저구마을에서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정의) 주최,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조수정) 주관으로 5명의 이사들과 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제12회 거제시간호사회 봉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처럼 주민들과 건강 상담, 교육, 건강 체크는 해드리지 못하였지만 80여 명의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파스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통영시간호사회 | 2008. 10. 10.**

**회원 역량강화사업(목공예 활동)**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통영풀앞문화센터에서 6월 8일(월), 6월 10일(수), 6월 12일(금) 3회에 걸쳐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50명이 간호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공예 체험활동(목공예 정리함

만들기)을 실시하였다. 회원들 간 소통과 함께 힘든 근무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역사회 나눔 행사**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0년 12월 8일(화) 마스크 500장을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기부하였다. 성명숙 회장과 2명의 이사가 함께 참석하였으며, 성명숙 회장은 “코로나 대응에 협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하나로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복지관 관장은 마스크 500장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2020년 12월 21일(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 2곳을 선정하여 경남간호사회 지원 이웃돕기 사업 성금과 통영시간호사회 후원금을 합산하여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동군간호사회 | 2008. 11. 12.**

**의료 봉사 활동**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2020년 8월 14일(금) 하동 우리들병원과 진주복음병원 의료진 30여 명 주축으로 하여 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동군간호사회 회원들은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200여 가구의 수재

민들을 찾아 화개면 원탑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쌀, 화장지, 라면 등 300여만 원의 구호물품과 수재의연금 500만 원을 하동군에 기탁하였다.

**김해시간호사회 | 2009. 04. 07.**

**코로나19 홍보 부스 운영**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2020년 2월 15일(토) 2시 김해시청 김해시장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상동 시장에서 권영채 회장을 비롯하여 관내 부시장, 이사들이 주축으로 주말에 오전(AM11~PM4)/오후(PM4~PM8) 타임으로 나누어 홍보하였고, 오후 2시~4시 사이 가장 사람이 밀집된 시간에 좀 더 편중하여 보건소에서 준비한 락스를 들고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면서 올바른 착용법과 손위생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2020년 3월 5일(목)~3월 9일(월) 김해시 관내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안심병원 8곳을 회장을 비롯하여 허현점, 김미남, 이인희, 주은주 이사가 방문하여 소정의 위로금과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며 고생하는 회원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했다. 각 기관의 병원장과 부서장들과도 대면 소통하며 간호사들의 현장 의료지원 및 김해시간호사회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봉하마을 의료지원**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2020년 5월 23일(토) 10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 행사에 정계인사 및 많은 인파로 인해 코로나 감염 지역전파가 우려되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일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마스크 착용 교육과 손 소독제를 직접 뿌려주는 봉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행사에 권영채 회장과 강선희, 허현점, 김미남, 주은주 이사, 가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 | 2009. 05. 28.**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격려 방문**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 3월 6일(금) 양산시 지역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3개 기관(양산시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베데스다병원)을 방문하였다. 양산시간호사회는 각 기관에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장우연 전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하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학생에 장학금 전달**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0년 11월 24일(화) 양산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 3명(동원과학기술대학교 허예영, 부산대학교 양정은, 영산대학교 손수빈)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산시에는 부산대 간호대학, 영산대 양산캠퍼스 보건의료대학 간호학과, 동원과학기술대 간호학과 등 3개 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웃돕기 성품 기탁**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2020년 11월 6일(수)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구급함 58박스(일백만 원 상당)를 양산시로 기탁하였다. 장우연 전 회장은 “나눔의 기쁨으로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라며, 작은 구급함으로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기탁된 구급함은 관내 저소득층 58세대에게 전달되었다.

**거창군간호사회 | 2010. 06. 18.**

**간호역량개발사업(도자기 및 스카프 염색)**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유광자)는 2020년 11월 25일(수)부터 12월 23일(수)까지 거창군간호사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및 스카프 염색활동을 진행하였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이 회원들에게 힐링과 자부심도 고취되었고, 친목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밀양시간호사회 | 2016. 0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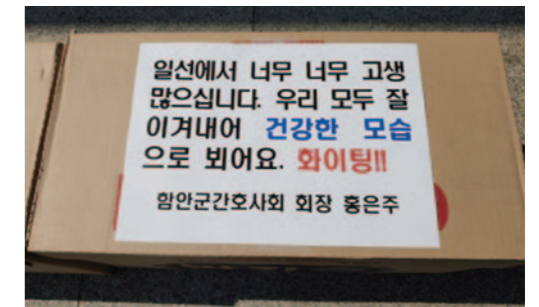
**제5회 밀양시간호사회 정기총회**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2020년 11월 28일 제 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심카(car)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원 21명이 참석하여 2019년 사업을 결산하고 2020년~2021년 임원선출 및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함안군간호사회 | 2017. 03. 27.**

**코로나19 대응 회원 격려**



함안군간호사회(회장 홍은주)는 2020년 6월 코로나 19 대응 병원 및 요양병원 소속 회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했다. 코로나19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회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누적되어 자칫하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실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하루 빨리 국가 재난 상황이 종료되어 모든 회원들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근무 할수 있길 기대한다.

코로나19 대응 모습

간호사들의 헌신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위원회 제작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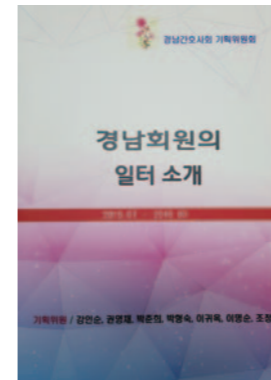
유익한 정보 경남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세계유명병원 소개

(2014. 5. ~ 2016. 2.)

경상남도내 의료기관의 회원들에게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역량과 견문을 높이고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에 걸쳐 해외 및 국내 18개 병원들의 첨단 의술과 의료시설, 합리적인 경영, 의료정신 등을 소개



경남회원의 일터 소개

(2016. 7. ~ 2018. 3.)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상남도 소재 병원, 진료소, 학교, 너싱홈 등 각 의료기관에서 지역 주민과 환자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로 간호전문인으로서 변화, 발전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의 일터 20곳을 소개



경남회원의 칭찬릴레이

(2018. 7. ~ 2020. 4.)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상남도 내 곳곳에서 지역 주민과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14명을 추천받아 소개

2021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번호	학교명	간호교육 인증평가 연도	학과장 (학장 및 학부장)	정원 (정원외)	주소 (우편번호)	운영과정 (대학원, 전공심화, 전문간호사 외)	총 학생 수	
							남	여
1	가 야 대 학 교	2020	조정림	144 (20)	김해시 삼계로 208 (50830)	보건대학원, 의료인 편입	650	110   580
2	거 제 대 학 교	2020	이수연	110 (10)	거제시 마전1길 91 (53325)		360	100   260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20	이은숙	40	진주시 동진로 33 (52725)	대학원	165	48   117
4	경 남 대 학 교	2019	이은주	99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51767)	대학원	401	75   326
5	경남도립거창대학	2020	이외선	65 (2)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50147)		183	37   146
6	경 상 대 학 교 (간호대학)	2020	은 영 (학장)	70 (2)	진주시 진주대로 501 (52828)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298	62   236
7	김 해 대 학 교	2020	조영란	129 (57)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50811)		625	123   502
8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019	손조옥	118 (50)	양산시 명곡로 321 (50578)		503	105   398
9	마 산 대 학 교	2020	남정자 (학부장)	220 (111)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51217)	전공심화과정	1255	213   1,042
10	부 산 대 학 교 (간호대학)	2020	서지민 (학장)	80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50612)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감염, 중환자, 정신, 노인)	402	92   310
11	영 산 대 학 교	2019	김익지	84 (39)	양산시 주남로 288 (50510)	일반대학원	410	70   340
12	진주보건대학교	2020	백명화 (학부장)	348	진주시 의병로 51 (52655)	학점은행제	1,397	248   1,149
13	창 신 대 학 교	2020	제남주	114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51352)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호스피스), 학점은행제	466	52   414
14	창 원 대 학 교	2019	노윤구	30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51140)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간호학과(석사, 박사), 보건학전공(야간)	124	21   103
15	창원문성대학교	2020	전윤희	104	창원시 의창구 충훈로 91 (51410)		370	70   310
16	한국국제대학교	2021	오수미	40 (10)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 (52833)		201	54   147

(2021년 2월 기준)

2020-2021 경남간호사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책
회 장	박 형 속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부회장	남 정 자	마산대학교 간호학부장
제2부회장	성 명 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이 사	권 영 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 미 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김 희 자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박 신 속	SMG연세병원 간호이사
	박 옥 명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박 옥 엽	경상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신 미 란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이 옥 경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전 진 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조 상 희	진주고려병원 간호국장
조 수 정	거제맑은샘병원 간호부장	
하 영 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감 사	손 계 순	거창 양지보건진료소 진료소장
사무처장	이 종 임	전)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양 은 주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국

(2021. 1 현재)

2021년도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회장

단체명	성 명	근무처
창원시간호사회	이갑옥	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진주시간호사회	김영미	경상대학교병원 간호과장
거제시간호사회	조수정	거제 맑은샘병원 간호부장
통영시간호사회	성명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창녕군간호사회	김인숙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하동군간호사회	임인숙	전) 하동우리들병원 간호부장
고성군간호사회	이윤희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정신담당
김해시간호사회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양산시간호사회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사천시간호사회	최경숙	삼천포제일병원 간호본부장
거창군간호사회	유광자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교수
남해군간호사회	강영화	남해병원 간호과장
합천군간호사회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
밀양시간호사회	이명순	밀양 차월보건진료소장
함안군간호사회	홍은주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창립순)

2020년-2021년도 상임위원

구분	직책	성 명	근무처
기획위원	위원장	남정자	마산대학교 간호학부장
	위 원	공명속	마산의료원 간호부장
		김 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신속	SMG연세병원 간호이사
		송경희	창원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경숙	삼성창원병원 플로우매니저
법제위원	위원장	성명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위 원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신 은	국립마산병원 간호과장
		윤연옥	한마음창원병원 간호이사
		이명순	밀양 차월보건진료소장
		이옥경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전진선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교육위원	위원장	하영미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위 원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김성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은희	TH여성헬스케어 연구소장
		박옥엽	경상대학교병원 간호과장
		지영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하주영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재무위원	위원장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위 원	김현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객원지원팀장
		김희자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박옥명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조영란	김해대학교 간호학과장
		조정의	거북백병원 간호본부장
		홍은주	함안군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홍보위원	위원장	신미란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위 원	김영란	장유엠아이병원 기획조정실장
		심봉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행정교육팀장
		이숙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상희	진주고려병원 간호국장
		하재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희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편집자 레터



휴가를 내어 오랜만에 진주로 향했다. 편집이라고는 하지만 생소한 분야라 호기심 반 설레임 반으로 의견이 오고가고 빠듯거리는가 했지만 몇 시간의 수정으로 완성되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를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우리의 봄을 기대해본다. <신미란 위원장>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암울한 세상을, 늘 그렇듯 각자의 위치에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녕 새봄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남 간호인 여러분 화이팅! <김영란 위원>

『경남간호』 제26호 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관마다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번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되새기며 『경남간호』가 회원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봉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남간호』의 발자취를 이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경남간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숙희 위원>

『경남간호』 제26호 발간으로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이, 한시도 긴장을 풀수 없는 현장에서 잠시나마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남간호사회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파이팅입니다. <조상희 위원>

코로나19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이는 간호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은 상황일지라도 간호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도 간호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하재현 위원>

COVID-19로 분주하고도 무거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빛난 활약을 한 우리 간호사의 발자취와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경남간호』 제26호를 내어놓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2020  
8·15  
75주년

# 독립의 영웅에서 코로나의 영웅으로 간호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사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독립운동가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간호사들이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 강아영 · 강영파 · 광영주 · 김금석 · 김덕신 · 김병숙 · 김복수 · 김복신 · 김봉덕 · 김성학 · 김순경
- 김순애 · 김안순 · 김여운 · 김연실 · 김영순 · 김오선 · 김은순 · 김원경 · 김은도 · 김용숙 · 김태복
- 김현미 · 김화순 · 김효순 · 노순경 · 박경숙 · 박덕혜 · 박봉남 · 박옥신 · 박원경 · 박은덕 · 박자혜
- 박재옥 · 배은경 · 서수신 · 송정현 · 오화영 · 우봉운 · 우지순 · 원경애 · 윤진수 · 이금전 · 이도신
- 이봉순 · 이성효 · 이아주 · 이애시 · 이약한 · 이의순 · 이정숙 · 이화숙 · 임수명 · 임춘자 · 장옥순
- 장윤희 · 장의숙 · 전사덕 · 정종명 · 조은실 · 조흥원 · 지성숙 · 채계복 · 최명애 · 최봉주 · 최선화
- 최승원 · 최중숙 · 최혜순 · 탁명숙 · 한신광 · 함귀래 · 함명숙 · 홍덕주

